

NET WORK



NET WORK 협회·회원사

(사) 한국포장협회 포장분야 단체장 회의 가져
 (사) 한국포장협회 연포장업계 어려움 타개 논의
 SKC(주) 구개 최초 나노적층필름 개발
 위더스케미칼(주) PET 생분해 수축라벨 개발

NET WORK 정책기관

산자부 RFID기술 전문인력 양성 실시
 식약청 과자, 음료 당, 트랜스지방 함량표시
 특허청 상표 디자인전 개최
 중기청 혁신형 중기 해외진출 지원

NET WORK 유관단체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제22회 한국포장기술인 세미나 개최
 한국포장기술연구소 해외전문가 초청 코팅기술 세미나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 국제인쇄산업전 개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NET WORK 업계동정

제지업계 제지사 4분기 호조 예상
 의약업계 소포장 단위 전격 합의
 (주)한독약품 웨스탈 '전자표기' 도입
 화학업체 원자재값 상승에 공급 과잉



(사)한국포장협회
포장분야 단체장 회의 가져
이번달 13일 2차 회의 계획

(가칭)한국포장산업연합회를 위한 포장분야 단체장 모임이 지난 달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렸다.

(사)한국포장협회 김선창 회장과 공재홍 전무이사를 비롯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한국포장기계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PET용기협회 등 국내 포장관련 12개 단체 단체장 및 상근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한국포장산업연합회 설립에 대한 각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포장분야를 대변할 대표적인 단체의 절대적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가칭)한국포장산업연합회 설립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 포장업계에 연합회가 조직되는 것은 업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를 비롯한 단체장들은 그동안 중금속, 환경 규제 등에 개별 포장 관련 단체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통합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가칭)한국포장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정 충당 및 사무실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포장협회 김선창 회장은 “단체 설립



▲ (사)한국포장협회 포장분야 단체장 회의 가져

시에는 자금운용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무실 및 직원 3명 운영시 1~1.8 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각 단체별로 년 6백만원의 지원이 가능한 지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가칭)한국포장산업연합회가 정부 보조 지원을 바라지 말고, 자체적인 자생력을 가질 때 정부와 포장분야가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지를 모으고, 생산자 단체가 우선적으로 결속력을 다진 후, 기술단체와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가칭)한국포장산업연합회 회원의 범위를 단체 회원 외에 기업 회원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장 각 분야간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판단 아래 이번 달 13일 포장분야 단체장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포장분야 단체장 2차 모임에서는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종이컵협동조합, 한국파렛트컨네이너협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업계 어려움 타개 논의
 연포장분과위원회 회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 산하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윤영욱)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업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유가, 환율 변동, 업체들의 부도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연포장업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계의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업계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제 가격을 받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피하고 협력하는게 우선이라 판단, 협회 차원에서 유저 측에게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업체들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는 올들어 지속된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저측의 가격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 유가가 떨어지자 오히려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유저측에 호소하고 제값 받기 운동,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 업계가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같이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유저측의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최근 연포장 업체들이 누적된 경영 악화로 부도 업체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경우 업계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연포장업계는 지난 해부터 치솟는 원부자재 가격에 질 낮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유저 측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적용받지 못해 경영이 계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SKC(주)
국내 최초 나노적층필름 개발
 첨단 소재들을 개발 계획

SKC(주)(대표이사 박장석)는 1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나노기술을 필름 분야에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컬러 필름 ‘팬시라이트 (Fancylite)’ 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SKC는 팬시라이트 필름에 적용된 나노적층 기술을 활용해 기능성 윈도우 필름, 세이프티 (safety) 필름, 액정표시장치(LCD)용 휘도향상 필름 등 첨단 소재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노필름기술의 경우 활용도가 매우 높아 SKC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팬시라이트 필름은 나노미터 수준 두께의 수지가 수백층 적층된 필름으로 각층 수지의 굴절률 차이, 각층의 두께 및 적층 수에 따라 그 칼라특성이 발현된다.

또 광원의 특성, 보는 방향, 배경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해 마치 비누방울 놀이에서처럼 무지개 빛의 찬란한 효과를 낸다.

과거의 컬러 필름들은 주로 염료나 안료를 필름 내부에 넣거나 필름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조돼 왔다. 하지만 팬시라이트는 필름 자체의 구조로부터 색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안료, 염료의 변화에 의한 탈색이나 변색이 없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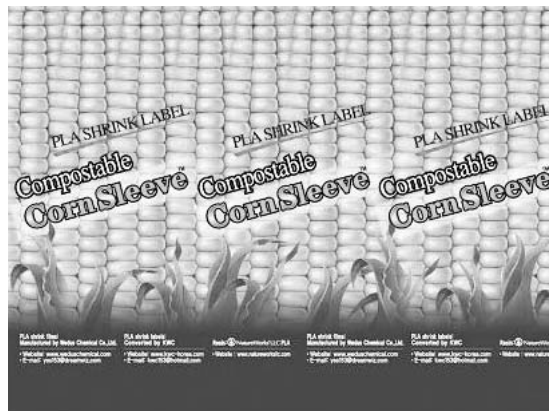
이 기술은 해외 일부 업체에서만 상품화에 성공했다. SKC는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

노기술의 팬시라이트 필름을 개발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된다.

현재 전세계 팬시라이트 필름 시장규모는 약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필름은 라미네이션, 인쇄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주로 화장품, 양주류 등의 고급 제품 포장에 사용될 전망이다.

위더스케미칼(주)
PET 생분해 수축라벨 개발
 석유화학 대체제 성장 기대

위더스케미칼(주)(대표이사 신영수)가 수축필름종합메이커로서의 자부심과 Know-How를 가지고 지난 3년여 동안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포도당으로 발표시켜 젯산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네이처웍스사(Natureworks LLC)의 곡물 추출원료를 공급받아 페트병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라벨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축라벨(PLA Shrink Label) 개발을 성공시켰다.



▲ PLA Shrink Label 인쇄 제품

이 제품은 기존의 플라스틱 라벨과 달리 매립 시 온도, 습도, 미생물의 조건이 충족되면 5주만에 완전 분해돼 복합비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번 달 일본 도쿄팩(TOKYO PACK) 전시회에도 참가, 세계 시장의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일본 유수 기업들의 상담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여러나라 대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품을 성공한 업체는 현재 미국, 일본 등 2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며 경쟁 업체들의 제품을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위더스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이 제품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져,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을 확대해 가는데 있어 환경 규제 장벽이 완전히 해소됐다. 특히 2007년도에만 수출목표를 오백만불 예상하고 있어, 향후 석유화학제품의 대체제품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더스케미칼은 올해 그룹 매출 4백5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 1천억 매출에 상장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지엠피
김양평 회장 인쇄문화대상 수상
인쇄관련 기술증진 공로

(주)지엠피의 대표이사 김양평 회장은 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에서 주관하는 2006년 인쇄문화 대상 '기술부문'에 선정되어, 지난 달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18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받았다.

금번 수상자는 '기술부문'에 당사 대표이사 김양평 회장을 포함하여, '경영부문' 신우프레스 조광운 대표이사, '특별부문' 청주대학교 박문열 교수, '친환경부문' 한국하이텔베르그(주) 김범식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지엠피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라미네이팅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라미네이팅기기 및 필름을 개발함으로써 인쇄관련 분야의 기술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에 선정된 계기가 됐다.

도레이새한(주)
중국에 국내 최초 부직포 회사 설립
아시아 1위 PP 부직포 메이커로 부상

구미공단의 대표직 부직포 생산업체인 도레이새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장수성(江蘇省) 난통(南通)에 폴리프로필렌(PP) 부직포 회사 설립에 나선다.

도레이새한은 중국 합작방식인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지분은 도레이새한 50%, 일본 도레이 40%, 도레이중국투자회사 10% 등을 각각 투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도레이새한의 중국법인은 총 6백억원을 투자해 3만평 부지에 연산 1만8천t 규모의 고급위생재, 의료용 부직포를 생산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08년 본격 가동된다.

도레이새한의 첫 해외사업인 이번 중국 투자는

현지공급 체계를 확보한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수출에 나선 도레이세한의 부직포는 현재 중국 위생재(아기용·성인용 기저귀 및 여성용 생리대 등) 상위 10개 업체 중 9개사에 공급하는 등 중국 일회용 기저귀 시장의 15% 점유하고 있다.

도레이세한 이영욱 상무는 “이번 중국 투자로 국내 연산 4만9천t, 해외 연산 1만8천t 규모로 아시아 1위의 PP 부직포 메이커로 부상했다”며 “향후 지속적 증설을 추진, 중국에서의 장기 생산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필름류 포장재 개선
배출·수거·운반 등 실태 조사 실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이 이뤄져야하는 라면 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거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배출 재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자의 인식부족, 낮은 유가성으로 인한 수거·운반업체의 수거 거부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3일까지 1차 구·군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구·군의 2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2백35개단지(12만9천6백26세대), 재활용수집 운

반업체 1백82개사이다.

시는 이어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1차 조사 결과 필름류 포장재 미수거처리 공동주택 및 재활용 수집 운반업체 가운데 구군별 표본조사(25개소)와 재활용선별장(4개소), EPR 대상품목 재활용 사업자(2개사)에 대해 2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동주택의 EPR 대상품목 분리·배출실태, 수집운반업체의 대상품목 수집·운반실태, 재활용선별장의 대상품목 선별실태, 재활용사업자의 대상품목 처리 물량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EPR 대상품목은 4개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5개 제품(전자제품,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군으로 19종류에 이른다.

진주시청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
진주시 상품 부가가치 증진 위해

진주시는 가공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에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농산물에 대하여 상품여건에 적합하게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

인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포장박스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상품 팸플릿 또는 리플렛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에 사업비가 지원되며, 업체당 2백50만원의 범위내에서 개발비의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가공농산물의 디자인을 개발·개선하고자 하는 진주시 소재 가공식품 생산업체와 신기술이나 신상품 개발업체, 정부지정 벤처기업 등 해당품목의 유망한 수출계획(신용장, 계약서 등)이 있는 신규 가공농산물 업체, 진주시 가공농산물 추천상품 지정업체 등 6개 업체를 선정하여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당해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해당업체인 경우), 신상품 개발 및 정부인증서 등 관련서류,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 개척단 참가 관련서류 각1부를 지참하여 오는 10월 7일까지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전화 749-2196)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과대포장 상품 중점 점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북 부안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대형 마트 및 할인점의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달 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류, 건강 기호 식품류, 의약부 외 품류, 신변 잡화류, 가공 식품류, 고급 농수산 특산품, 1회용품 사용실태 등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포장재질 및 포장 공간비율, 포장횟수를 점검해 과대포장 상품으로 의심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한 후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과대포장 상품으로 인한 제조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차단하고 쓰레기 다량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제20회 전북산업디자인대전 개최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산업디자인의 창의적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관련 종사자의 발표기회를 마련코자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도 제20회 전라북도산업디자인대전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올해 대전은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원과 전주·군산·익산·정읍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단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대상 5백만원(산업자원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상금 1천6백40만원을 수여하게 된다.

출품부문으로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6개분야이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이면 누구나 참가하여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출품은 11월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접수하며, 출품신청서는

전라북도 산업디자인협회 홈페이지 (www.idsj.or.kr)에서 다운받아 작품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학계 및 디자인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15인 이내)에서 조형성, 실용성, 창의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할 계획이며, 우수작에 대하여는 11월 10일 시상과 함께 6일간 출품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 전시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로 20회째 맞는 본 대전이 명실공이 권위를 자랑하고 산업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도내 디자이너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부단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RFID기술 전문인력 양성 실시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개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함께 국내산업에서의 RFID 도입과 활용을 주도해 나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국내 관련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을 초빙, 지난 달부터 RFID 산업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RFID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내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산업계의 RFID 도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보다 많은 기업 실무담당자와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위해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RFID기반 전자상품코드체계(EPC), 정보 공유 시스템(EPCglobal Network) 등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도입가능한 업무영역, 기업내에서의 적용 방법·모델 등 산업현장 적용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에는 12~13일 양일고 16일에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일정과 수강신청은 산업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운영하는 '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http://www.rfidepc.or.kr>, 전화 02-6050-1436)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RFID 관련 발간 자료들이 제공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S규격' 전자책 열람 서비스
 다운로드 오류 없어지고 시간 빨라져

지난 달 1일부터 25천여종의 KS규격을 '전자책(e-Book)'으로 볼 수 있게 돼 규격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시 나타난 오류를 없앨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책(e-book)은 기존의 지면을 이용한 지식전달 방법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책 형태의 화면을 자신의 PC에서 뷰어(Viewer)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낳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국가표준 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와 네이버(www.naver.com), 엠파스(www.empas.com)를 통해 PDF 파일로 열람 서비스를 해 온 KS 규격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e-Book으로 제작된 KS 규격은 열람용 프로그램(전자책 보기 프로그램)이 사용자 PC에 자동 설치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열람할 페이지의 데이터만 다운로드하므로 용량이 큰 파일도 신속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KS 규격을 빠르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다 검색 기능도 보강하여 KS 규격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용해 온 PDF 파일에 의한 KS 규격 열람은 규격 하나를 보기 위해서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규격 열람용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때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그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질문과 함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인터넷을 통한 KS 규격 열람은 '03년 6월부터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금년 1월부터는 네이버에서, 8월부터는 엠파스에서도 열람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년들어 7월까지 인터넷 열람실적은 93만6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7% 증가했다.

기술표준원은 금년중에 KS 규격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서 본문중에 나타나는 다른 규격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규격을 볼 수 있는 '참조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자, 음료 당,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내년 12월부터 빵,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등 표시기준」을 지난 달 8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여기로 했다.

나트륨의 기준치는 현행 3,500mg에서 2,000mg로 하향 조정했으며 비타민 C 기준치는 현행 55mg에서 100mg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주의 문구 표시대상 품목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이다.

이와 함께 현행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많이 변화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농수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는 버섯류, 영결채류, 수산물의 경우 표시된 양의 5%, 과채류, 근채류, 향신식물은 표시된 양의 3%, 서류, 곡류, 두류, 과일류는 표시된 양의 2%로 조정했다.

또한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 미량만 사용하는 합성착향료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합성착향료(○○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전통차 패키지디자인 대상 수상
홍익대학교 손지은, 손희진 씨 수상**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의 수상작 7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의 대상 수상작품은 홍익대학교의 손지은, 손희진 씨가 출품한 “전통차 패키지디자인”으로 결정됐다.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장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유재우교수는 “여성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는 아이디어가 참신하

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낸 것들로 청주대 김영민군의 ‘휠체어’는 필요시 들것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실용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국민대학교 임창훈군의 ‘배낭’은 여닫는 방법을 전통의 보자기에서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이번 대학생디자인공모전에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생디자인공모전에서는 총 2백50점의 작품을 접수받아 1차 패널심사와 2차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모형심사까지 거쳐 선정하게 됐다. 그 중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다른 디자인공모전과 큰 차이점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디자인(1)심사팀장 김주호)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심사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디자인 전개능력 뿐만 아니라



▲ 특허청 대학생디자인공모전 대상수상작인 전통차 패키지디자인

특허청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법적인 절차를 경험하게 하여 디자인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은 특허청의 “2006 상표·디자인전”과 함께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전시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실시해온 ‘대학생디자인 권리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은 전국의 디자인전공 대학생 및 산업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보호제도교육을 통해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산업 현장에서 창작한 디자인 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장려함으로써 디자인출원의 증가와 함께 디자인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허청
상표 디자인전 개최
 상표 디자인의 가치 쓰임새 홍보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나라 상표,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표-디자인 체험전시회인 2006 상표-디자인전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특허청과 경제4단체(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상표, 디자인 그리고 권리」를 주제로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등록방법을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지식재



▲ 특허청 상표 디자인전 개최

산 이야기를 통해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가치와 쓰임새를 전달했다.

특히 국내외에서의 위조품 피해사례 전시, 위조품을 구분하는 방법, 위조품 신고 및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페이크앤리얼'이 전시, 변리사 및 디자인컨설팅업체 직원과 1:1 상담할 수 있는 '지식재산커뮤니케이션'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전시기간 중 함께 진행됐다.

'키포씨의 하루' (101개의 지식재산권 이야기)에서는 현대인의 일반적인 하루를 일례로 들어 아침 기상으로부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할때 까지 만나는 1백1개 제품속에 구현되어 있는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소개하고 모의 상표등록을 체험할 수 있는 '헬로키포(특허청관)'와 역량 있는 디자인대학생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젊은 미래', 우리 주변에서 한번쯤 본 듯한 지역이야기를 담은 우리지역, 우리상표 이야기 21백6개와 지역특산품의 명성과 역사를 소개하는 '풀뿌리 상표' 등이 전시했다.

지난 100여년에 걸친 상품과 상표의 변천사와 시대별 광고 흐름, 기업 CI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트렌드 히스토리'와 함께 소리·냄새·동작상표, 아이콘·감성디자인·컨셉디자인 등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상표·디자인 권을 SF 공상과 학영화를 통해 미리 조망해 보는 '미래의 상표 그리고 디자인' 등을 통해 상표, 디자인이 변화해 온 궤적과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RFID 표준과 특허 워크숍개최

특허 및 표준전략 지원 넓힐 듯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달 8일 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분야의 표준과 특허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RFID는 무선주파수를 이용, 원격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로, IT 산업은 물론 국방, 조달, 건설, 교통, 물류 등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의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술이며,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권자들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 할 수 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ETRI의 표철식 박사와 국제표준화관련 국내분과 전문위원 최명렬교수 및 특허분쟁 전문가인 서천석 국제변호사가 RFID 기술 및 시장전망, 표준화 동향, 그리고 분쟁대비 특허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특허출원동향 및 조기 특허권확보 방안을 담당 심사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RFID분야의 표준과 특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또한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이범호)은 RFID

정책기관

분야와 같이 중요 성장동력 기술분야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것만으로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려우며, 이를 특허 권리화하고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해 표준화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워크숍을 통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특허와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WiBro, 홈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청 혁신형 중기 해외진출 지원 포장기계 등 4개 컨소시엄 선정

수출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성장가능성이 큰 전략 수출시장으로 선정, 업종별 조합·단체와 혁신형 수출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방식의 해외진출을 시범적으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4개 컨소시엄 주관단체는 한국포장기계협회, 한국웹캐스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이다.

이 사업은 코트라·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의 국내외 지원사업과 체계적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먼저 중국, 싱가포르, 인도, 스페인 등의 전략 수출시장을 선정하고, 혁신형 수출중소기업, 조합단체 및 지원기관으로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40여개 중소기업의 전략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 해외마케팅 사전준비 단계에서 전략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발굴 및 사전 홍보를 참여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 전략시장 파견단계는 전시회 참가, 상담회 개최 및 해외 로드쇼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또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수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협상 및 계약진행을 지원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차년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정보수집 및 바이어 발굴 등 추진과정에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략 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싱가포르, 홍콩	바이오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현지시장 진출
한국여성벤처협회	중국, 베트남	가공식품 퍼스널케어	수출상담회, 제품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한국포장기계협회	인도	포장기자재	인도 포장기자재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한국웹캐스팅협회	스페인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로드쇼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제22회 한국포장기술인 세미나 개최

5단롤 코터, 슬롯 다이 코팅 등 관련 내용 담아

한국포장기술인협회(회장 김영호)는 이번 달 17일 성안기계(주) 마도신공장에서 제22회 한국포장기술인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밀코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5단롤 코터·스롯트 다이 코팅, 고속 그라비아 인쇄기, 압출기, 수지가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특히 이들 기기의 현장 실습을 통해 이해도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포장기술인협회의 신동호 부회장의 성안기계(주) 마도 신공장 준공이전 축하를 겸해 열리는 것으로 성안기계(주)와 한국포장기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이번 달 10일까지 성안기계(주)영업부(전화:031-491-9741(교환115))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사무국(전화 02-2026-8230, 8166)으로 하면 된다.

세미나 일정표

10:00~10:30	* 5 Roll / 3 Roll Coater (30min) (Trolley Type Coating Head) -다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코팅헤드의 디자인 개념 -코팅헤드의 응용 (가압 챔버독터 포함 13종의 코팅방법)	성안기계(주)/ 이사 강희수(본회회원)
10:30~11:00	* 고속 그라비아 인쇄기 (30min) - 고속 그라비아 인쇄기의 디자인 개념 - 고속 그라비아 인쇄기의 구조 - 고속 그라비아 인쇄기의 사양	성안기계(주)/ 과장 권순오(공학박사)
11:00~12:00	* Slot Die Coater (60min) : <Cloeren Die> - 코팅방법 개론 - 스톱트 다이 코팅 - 스톱트 다이 시스템	대주산업 / 차장 유정권(본회회원)
12:00~13:30	중식	
13:30~14:00	* 신형 압출기(30min) - 압출기의 구조 - 압출기의 사양	성안기계(주)/ 이사 강희수(본회회원)
14:00~16:00	* 폴리머 가공 (120min) - 폴리머의 레오로지 - 압출가공 - 스크류 디자인 개념	RPI 명예교수 정찬일(공학박사)
16:00~17:30	공장견학 (강연내용)	
17:30~18:30	카테일 파티	

한국포장기술연구소	해외전문가 초청 코팅기술 세미나 개최
------------------	-----------------------------

코팅현장에 있어서의 트러블과 해결법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이번 달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서울팔래스호텔 코스모스룸에서 해외전문가 초청 코팅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코팅(Coating)은 컨버팅의 기초가 되고 컨버팅 분야의 최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를 모르고서는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의 응용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에서는 최근 전자재료나 광학재료 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 가공에 필연적인 정밀코팅으로 인하여 코팅의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 영원한 숙제 “코팅(Coating)”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연은 코팅(Coating) 직후에 있어서의 Trouble과 해결법, 건조공정에 있어서의 Trouble과 해결책, Aging후에 있어서의 Trouble과 해결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월간 컨버텍 및 CMM JAPAN & JSP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는 (株)加工技術研究會가 지난 달 21일~22일 Tokyo, 27일~28일 Osaka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중에서 “코팅 현장에 있어서의 트러블과 해결법”에 대하여 강연하는 것으로 연사인 原崎總合컨설턴트所長 原崎 勇次(MR. HARASAKI) 선생은 일본에서 코팅의 산증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으로서 일본 최고 코팅이론가로서 많은 코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는 그동안, 코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Harasaki 박사를 초청 “코팅과 인쇄 및 코팅방식의 최적 선택기술”이란 제목으로 지금까지 4회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참가비용은 1인당 50만원으로, 참가 희망자는 이달 17일까지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전화 (02)2026-8166)로 연락하면 된다.

대인인쇄문화협회	국제인쇄산업전 개최
-----------------	-------------------

인쇄로 여는 뉴미디어 세상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 관련 전시회인 ‘국제인쇄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KIPES 2006)’가 지난 달 6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됐다.

‘인쇄로 여는 뉴미디어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한국이엔엑스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

동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KOTRA, 대한인쇄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등 단체의 후원아래 성대하게 진행됐다.

6일 개막식에는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 위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최창근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맹호 회장, 한국잡지협회 강원희 회장,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박충일 회장,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 이영환 이사장,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충원 이사장, 대한인쇄연구소 고수곤 이사장,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전덕수 이사장,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박동립 회장, KINTEX 김인식 사장, 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 등과 업계 대표로 대호기계 김남호 사장, 다니폰스크린코리아(주)의 Mr. Takeo Mitsuhashi 사장, (주)성도GL 김남춘 회장, 한국하이텔베르그의 김범식 사장과 코닥GCG의 Mr. Lois Lebegue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기간 중에는 인쇄 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세미나가 진행됐다.

먼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가 “유비쿼터스시대 인쇄 경영전략”이란 주제로 지난 달 6일부터 8일까지 총 8회의 컨퍼런스를 개최,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인쇄기술을 통하여 현 인쇄사업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이앤엑스와 월간 인쇄계는 “글로벌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현황과 그 전망”의 주제로 지난 달 8일 총 8분야의 세션(session)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 및 인쇄관련 기관의 인사들을 초빙하여 세계적인 인쇄산업의 경향을 둘러봄으로써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 대한인쇄문화협회국제인쇄산업전 개최

유관단체

또한, 수출업체가 개별적으로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도 신기술을 참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시기간 중에는 우리인쇄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인쇄문화관을 설치 운영, 우리의 고인쇄물과 우수인쇄물들을 전시소개하고, 고인쇄 체험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국내 우수한 인쇄문화향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업체 1백41개사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중국 등 21개국에서 2백78개사가 참가해 프리프레스, 인쇄기계, 컷팅기, 스크린인쇄기, 홀로그램, 조각기 등 인쇄분야 전반에 걸친 국내외 최신 기자재를 선보였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제18회 인쇄문화의 날 개최

“인쇄문화 시상식 열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18회 인쇄문화의 날 행사가 지난 달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 대한인쇄문화협회 제 18회 인쇄문화의 날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재윤·배기선 의원 등 각계 인사들과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인쇄 관련 단체장 등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쇄문화산업의 발전과 인쇄인의 위상제고에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22회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제22회 인쇄문화대상은 4개 부문으로 시상, 경영부문에 신우프레스(주) 조광윤 회장이 기술부문에 (주)GMP 김양평 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특별부문으로 청주대학교 박문열 교수가, 진흥부문에는 한국하이텔베르그(주) 김범식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정부포상의 대통령 표창은 (주)아트정글의 강동환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은 (주)창성문화 민창준 대표가 수상했으며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에는 성문인쇄사 장현수 대표를 포함 15명이 수상했다.

국립식물검역소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열처리책임자 변경시 증명서 없애

국립식물검역소가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검역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수출화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포장재의 해충방제를 위한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하하고, 소독처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8월30일 부로 개정 고시(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6-8호)했다고 지난 달 7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열처리책임자 변경시의 열처리시설증명서의 재교부 신고를 없애고,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고도 소독처리마크 크기를 변경하거나 추가 제작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축소해 민원 불편사항을 대폭 감축했다.

또한, 소독처리업체가 보관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시하고, 열처리시설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열처리업을 중단조치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독처리업을 그만둘 경우 발급받은 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 첨부해 폐업신고하도록 해 소독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제기구인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목재포장재에 대한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시간이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훈증소독작업결과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소독처리마크신고증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인쇄대상 및 문화축제 열려

인쇄 산업 도약의 계기 마련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과 (재)서울인쇄센터에서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문화협회, 교과서박물관, 우정박물관, 대훈서적 등이 후원하는 '제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지난 달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서울시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서 지정된 인쇄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국내 최초의 인쇄물 공모전을 통해 인쇄인들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 좀 더 고품질의 인쇄물을 제작, 궁극적으로 인쇄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지난 달 14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에서는 (주)해인기획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2005년 연감'이 대상으로 수상했다. 또한 (주)애드맨의 TIME담배 거치대와 은성정밀인쇄(주)의 한국인삼공사 홍화정액 패키지가 포장 인쇄물 분야로 입선했다.

서울 시청광장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후원으로 고인쇄체험 마당이, 미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인쇄대상 및 문화축제 열려

에 수출되고 있는 다양한 수출인쇄물,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종이 이외의 매개체를 이용한 특수인쇄물, 북한인쇄물(대훈서적 후원) 등이 전시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006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르노삼성자동차(주) 등 10개 업체 수상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김정식)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2006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8일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에는 파렛트 분야에 르노삼성자동차(주) 등 4개 업체, 컨테이너 분야에 (주)파렛텍 등 5개 업체, 공로상에 한국물류전략연구소 김정환 소장이 선정됐다.

김정식 회장은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일관 수송용 국가 표준 파렛트인 T-11형 파렛트 및 이와 적합성을 갖는 표준 컨테이너로 국내 모든 기업들이 유닛트로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물류 효율화를 앞당기는데 기여코자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수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국가 일관 수송용 파렛트와 컨테이너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선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006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각하여 솔루션범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사내 물류 표준화를 통해 일관 파렛트화 및 컨테이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물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오늘 수상한 업체들에게 T-11형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생산하여 적극적인 보급 활동에 힘써준 업적을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한국파렛트 컨테이너산업대상'은 국내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표준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생산또는 사용하고 있는 우수업체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하여 물류효율화와 일관수송시스템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지난 3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아시아 파렛트 시스템 연맹'이 지난 6월 8일 동경에서 결성, 한국 T-11형 파렛트가 아시아 표준 파렛트로 제정됐다고 발표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

자동화정밀 기기 신기술과 신제품 선보여

국내외 자동화기계산업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엿볼 수 있는 2006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KOFAS)이 지난 달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렸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외교통상부와 KOTRA, 경기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국내 1백92개 업체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 19개국에서 모두 3백37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회는 FA기기·공정제어시스템', 금속가공기계·공구', 유공압기기·펌프', 제어계측·시험검사기기', 포장기기, 물류제어시스템' 등 6개 전문 출품 분야로 구성돼 자동화정밀기기 신기술과 신제품

을 선보였다. 또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우수 자본재를 개발한 희성엔겔하드(주), 한미반도체(주) 등 42개사가 참가한 우수자본재 개발포상관'이 별도로 설치되며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NEP)을 받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한국우수인증제품전과 국내 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기계벤처산업전도 함께 진행됐다.

이밖에 전시기간에 기계산업의 선진기술을 소개하는 기계기술 세미나가 부대행사로 열렸으며 기계산업 종합안내센터가 마련돼 연합캐피탈과 대한상사중재원 등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시책을 안내했다.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

제지업계
제지株 4분기 호조 예상
 국제 펄프가격 및 환율 안정세 따라

제지업체 주가가 4분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지업종은 그 동안 국제 펄프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연초 이후 내수시장에서 수입지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주가가 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펄프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일부 종이 가격도 인상되면서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종이·목재업종지수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8.9%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KOSPI는 4.4%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강한 반등세를 보인 셈이다.

개별종목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통적 성수기인 4분기에는 뚜렷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제지업계 대표주인 한솔제지에 대해 환율 안정으로 수출 채산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7월 백판지 가격도 3%씩 인상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수익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유정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제지업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지업계가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위해 애쓰고 있기 때

문에 하반기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주병 신한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펄프가격 강세, 원화 강세, 내수가격 인상 지연 등으로 약재가 겹쳤으나 3분기부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제지업종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폴리테크
항균효과 은나노 종이용기 개발
 음식물 신선도 높여

용기 표면에 은나노를 첨가해 항균·제균력이 뛰어난 1회용 용기가 등장했다.

특히 이 제품은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 종이용기여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공해 유발 염려도 없었다.

종이용기 생산업체 폴리테크(대표 최경주)는 항균성 종이용기 생산을 위한 항균성 펄프몰드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특허출원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나노 종이용기는 용기에 은나노를 첨가해 은나노 입자가 표면에 존재하므로 항균·제균력을 갖는다.

은나노는 황색포도상구균, 요소 부패균, 식중독 원인인 대장균, 레지오넬라균 등 약 6백50종류의 유해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나노 종이용기는 인체에 무해하고 자극성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최 사장은 “순수한 은 초미립자를 사용한 항균

업계동정

용기여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자체 실험실에서 은나노로 코팅한 용기와 일반 용기에 밥과 빵 등 음식물을 넣고 비교 시험한 결과 은나노 코팅 용기에 들어 있는 음식물의 신선도가 훨씬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계 소포장 단위 전격 합의 병포장 30정 포함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의약품 소포장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소포장 단위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양 단체장은 지난 달 11일 팔레스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병포장 등 시각차를 드러냈던 핵심 쟁점을 타결지었다.

먼저 양측은 ‘소량포장단위와 관련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 또는 30정 병포장으로 공급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또 소포장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 면제와 소포장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해 소량포장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고약 반품과 관련 ‘한국제약협회 회원 제약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의약품에 대해 약국에서 원할시 이를 반품받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의약품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양 단체가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소량포장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큰 틀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양 단체가 입장차를 보인 사안에 대해 갈등이 아닌 협조로서 이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마트 GAP 인증 제품 판매 친환경 계약농장 확대

지난 8월 초 이마트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우수 농산물 관리) 민간 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산 농산물은 점차 GAP 인증 제품으로 판매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데 이어 친환경 계약농장을 기존 15개에서 40개 농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GAP 제도란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종자부터 재배, 수확, 포장,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노력,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과정을 거친 우수 농산물을 표시하는 국제적 인증 제도이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회초밥은 외국인들도 선호할 정도로 맛과 선도 등에서 탁월하다. 이러한 이유는 회초밥에 사용되는 주요 생선인 광어가 이마트의 지정 바다목장을 통해 치어 단계에서부터 생산, 관리 등 특별 사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기존 4개인 지정 바다목장을 11개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마트만의 독자 사료 개발을 통해 품질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9월 죽전점에 첫 선을 보인 스포츠 빅텐은 537평 규모로 200여 개 브랜드, 판매품목만 2만 여 개에 달할 정도로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마트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 브랜드 외에 호신용품 및 사냥 관련 상품들을 추가로 확대하고, 수상, 구기, 아웃도어 용품 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테니스, 인라인 교실 지원 등 외부와 연계한 문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마트는 현재 운영중인 샐러드 상품을 과일, 야채, 드레싱 등 토탈 매장으로 운영하는 한편 1백50개 이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 최대 구색의 샐러드 매장을 구성하여 고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ISO, HACCP 등 위해 요소 사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이들 주요 상품들 외에도 해외 유명 브랜드 와인 상품들을 대거 구비한 업계 최대 구색의 '와인 전문 매장 확대', 중국, 영국, 인도, 대만 등 세계 명차 도입을 통한 '차 특화 매장', 유럽의 고급 수입소재를 사용한 '고감도 언더웨어 상품 개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충섭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대형마트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고객을 집객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며 "이마트는 선두기업으로서 향후 미래 매출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해태제과(주)
'맛동산' 리뉴얼
'樂 맛동산' 출시

30년 이상을 사랑받아 온 장수 히트 과자 '맛동산'이 새롭게 변신했다.

해태제과(주)(대표이사 운영달)는 1975년 출시했던 맛동산에 '즐거울 樂'자를 내세워 즐거움을 강조하는 '樂 맛동산'으로 바꿨다.

제품 이름은 물론 원료, 포장, CM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제품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재료 면에서는 최고급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으며 유산균 발효를 배합공정에 추가하는 등 2번의 발효 공정을 거쳐 딱딱한 식감을 개선했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 면에서도 '樂'자를 전면 배치하고 신선한 올리브 사진을 가미했으며 CM송도 신세대 취향에 맞게 새롭게 제작했다.

제품 가격은 85g 1천원, 1백75g 2천원, 2백90g 3천3백원 등으로 다양화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대한필프
디자인공모전 대전대 한서연 등 대상
1997년 이후 매년 개최해

(주)대한필프(대표 최병민)가 개최한 '제10회 깨끗한 나라 미용티슈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전대

업계동정

한서연·김지나 팀이 대상(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다.

대한필프는 지난 달15일 전국 65개 대학에서 출품된 1백62개 작품 중에서 39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선정근 전남대 교수는 “올해 작품은 전문가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대상 작품의 경우 티슈 케이스에 묘사된 여인의 인물 표현이 ‘화사한 그녀’라는 주제를 충분히 이해한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매일경제신문,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월간 디자인이 후원하는 미용티슈 디자인 공모전은 대한필프가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2차선 도로인 탄천변도로는 5, 6차선으로, 5천여대인 주차장 규모는 1만여대로 확대돼, 가락시영 등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전체 16만4천평 부지 중 1만평에 불과한 녹지가 2만5천평으로 늘어나 친환경 시장으로 조성된다.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내에 국내 최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이 설치되며, 판매 농산물에 가락시장 자체의 안전성 인증을 붙이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저온냉장시스템이 확대되고 ▲ 물류 및 포장처리 기계화 ▲ 집배송센터 설치 ▲ 도·소매 기능분리 등도 추진된다.

농산물업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식으로 물류 및 포장처리 기계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2017년까지 현대화된다. 1985년 개장한 가락동 시장은 무, 배추, 생선 등에서 생겨나는 쓰레기와 악취, 전국에서 몰려드는 농산물 운반차량 등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까지 5천40억원이 투입돼 지상에 있는 쓰레기 및 폐수처리설비, 가공처리장 등 모든 혐오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며 시장진·출입로는 기존의 송파대로에서 탄천변도로로 바뀌고 시장 내 주차장 규모가 늘어난다.

(주)삼양사 큐원 지퍼백 설탕 이벤트 11월 30일까지

(주)삼양사(대표이사 김윤)는 ‘큐원 지퍼백 설탕’ 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큐원 지퍼백 설탕’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보관 모습을 사진에 담아 삼양사 홈페이지(www.samyang.com)에 올리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LCD TV, 드럼 세탁기, 전기 오븐, 까라페리 올리브유, 큐원 찰호떡믹스 등 푸짐한 상품을 준다. 당첨자는 12월 8일 삼양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큐원 지퍼백 설탕’은 국내 유일의 지퍼백 포장으로 여러 번 덜어 써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용기에 담아 쓰거나 집게로 집어 보관하는 기존의 설탕과 달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오뚜기
만두시장 진출
1백30억에 삼포식품 인수

만두전문기업 삼포식품의 경영권이 오뚜기로 넘어간다. (주)오뚜기(대표이사 강신국)는 지난 달 15일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냉동만두 제조업체인 삼포식품 주식 11만1천1백20주(55.56%)를 1백30억원에 취득,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뚜기의 한 관계자는 “삼포식품 인수는 사업영역을 냉동식품 분야로 확대하는 동시에 종합식품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삼포만두로 잘 알려진 삼포식품은 지난해 3백21억원(순이익 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80~90%가 냉동만두의 몫이다. 삼포식품을 인수한 오뚜기는 최근 참치전문기업인 대림수산 인수에 나섰다. 가격협상 난항으로 인수를 포기하는 등 기업 인수·합병(M&A)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오뚜기가 삼포식품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만두 시장은 업체간 마케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연간 3천억~4천억원을 형성한 만두시장은 오뚜기가 인수한 삼포식품과 함께 CJ 취영루 해태제과 동원F&B 등이 치열한 5파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주)한독약품
웹스탈 ‘점자표기’ 도입
시각 장애인용

(주)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은 최근 시각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웹스탈 플러스”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각 장애인이 촉각으로 제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

고객들의 구입이 많은 10T 포장부터 한독약품 회사명과 웹스탈 플러스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며, 추후 100T 포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독약품은 이번 점자 표기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장애인도 많이 구입하는 다량 판매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시각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제작단가 상승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풀고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점자 표기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점자 표기 시행 외에, 한독약품은 지난 2002년부터 “웹스탈 플러스”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1정당 1원)를 적립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사랑플러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행사 5년째를 맞은 ‘사랑플러스 캠페인’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웹스탈 플러스’

업계동정

판매 적립금으로 마련한 1억원 상당의 쌀을 대한 약사회 전국 지부를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가정상비약, 비상구급약, 응급치료기구로 구성된 구급함세트 5천 개를 제작해 전국의 독거노인 및 청소년 가정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와 마찬가지로 '웨스탈 플러스' 판매 수익 적립금 전액을 대한약사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화학업체 원자재값 상승에 공급 과잉 공장가동 중단 및 감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과잉에 파업 장기화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석유화학·화학업체들이 갈수록 속출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40여 가지 품목 가운데 식기·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멜라민 생산라인 가동을 최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멜라민의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크게 오른 데다가 판매마저 부진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백56억원어치의 멜라민을 생산했다.

지난해 2만4천톤의 스파텍스(수영복 등의 원료)를 생산해 8백68억원의 매출을 올린 태광산업은 국내외 경쟁업체들이 생산물량을 마구 늘려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 8월 31일부터 스파텍스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태광산업의 자회사인 대화화섬도 올 6월 수출 판로가 막힌 데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연간 14만t 규모의 페트 바틀칩(생수 등의 포장용기) 생산라인 근무자 60여 명을 명예퇴직시킨 뒤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인 (주)카프로노조의 파업이 한달을 넘기면서 이 회사로부터 카프로락탐을 구입해 나일론 제품을 만드는 효성 등 4~5개 업체가 원료를 제때 구입하지 못해 평소보다 공장가동률을 10~20%씩 낮추고 있다. 코오롱 구미공장은 카프로락탐 재고가 바다나자 공급받는 고체의 카프로락탐을 잘게 쪼개 원료공정에 넣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다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나일론 생산량을 20%나 줄인 상태다.

울산석유화학공단 관계자는 "과잉공급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만들수록 손해"라며 "가동이 중단된 공정은 경쟁력이 없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농산물업계 GAP인증 농산배美 수출 LA지역에 공급

논산배가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로는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부산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제레스 지역에 공급된다. GAP 인증제는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한 제도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GAP 인증기관은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각종 유해 요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를 확인, 인증서를 주고 있다.

식품업계
동서식품, 네슬레 '포장' 싸움
케이스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맥심 커피의 제조사인 동서식품과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생산하는 한국네슬레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동서식품은 지난 달 8일 한국네슬레가 테이스터스초이스 커피믹스 1백~2백50개들이 케이스를 제조하면서 자신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 케이스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서식품은 신청서에서 “우리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포장 용기를 한국네슬레가 제조·유통시켜 폐기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네슬레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식품은 또 실용신안권 침해 정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네슬레측은 “동서식품이 케이스 실용신안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현재의 용기를 사용해 왔으며 동서식품의 법적 조치에 맞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커피 포장 용기는 테이블 위에 놓은 상태에서 아래부분을 뜯어내면 이를 통해 케이스 안에 있는 스틱 모양의 커피믹스를 꺼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주)제이브이엠
지멘스와 북유럽 독점계약
매출증대 효과 기대

(주)제이브이엠(대표이사 김준호)은 후지쓰지멘스IT프러덕트서비스AB사와 자사제품의 단독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달 8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후지쓰지멘스는 오는 2008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ATDPS)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유지보수, IMAC서비스(설치, 이송, 첨가, 변경)와 기타운영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계약 기간 종결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후지쓰지멘스측의 공급지역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이다. 후지쓰지멘스IT프러덕트사는 스웨덴법을 따르는 법인이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지멘스가 평가를 통해 제이브이엠을 협력업체로 택한 것”이라며 “상당한 유럽지역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한진
대전 종합물류센터 오픈
물류 토털 서비스 강화

종합물류기업 (주)한진(대표 이원영)이 국내 내륙 물류 중심지인 대전에 일일 20만 박스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종합물류센터를

지난 달 8일 오픈했다. 한진 대전종합물류센터 준공식에는 이원영 한진 사장을 비롯해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등 각계 인사 및 협력사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진 대전종합물류센터'는 대전시 유성구에 부지 1만4천5백55평, 연면적 5천8백80평,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05년 5월에 착공, 17여개월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 중부권 내 물류 유통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설된 물류센터는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간 당 2만1천박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보다 빠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 분류 2개 라인과 수동 분류 1개 라인을 갖췄으며 입고라인 16개, 출고라인 32개, 차량 동시 접안 대수 76대, 보관 창고시설 보유 등 국내 택배터미널 단일 규모로는 최대 시설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최첨단 자동분류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집하된 화물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전국으로 직접 발송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진은 이번 물류센터 오픈을 계기로 제품의 입·출하, 보관, 배송, 반품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실시간으로 재고관리, 배송 등 정보 제공과 특수포장 등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해 주는 물류 토탈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영 한진 사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물류 기업들이 거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도 한진이 공격적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코스트를 줄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림씨엔에프
'올품'으로 사명 변경
업계 2위 달성

하림씨엔에프(대표 이동영)는 사명을 '올품'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지난 달 4일 하림씨엔에프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인 '올품'을 발표했다.

'올품'은 '올바른 품질의 먹거리'를 의미 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365일 언제나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올품'의 이동영 사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닭고기 포장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고, 올바른 먹거리 제공으로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 기업으로 도약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 필요했다"고 사명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명 변경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통점 소매 시장에 진출 한다"고 밝혔다. 현재 5%수준인 유통점 소매 시장 점유율을 내년에는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올품'은 2007년 6월까지 현재 1일 45만수 도계 시설을 60만수까지 늘려 국내 최대 규모의 도계라인을 확보 할 예정이다. 또한 부분, 절단육 시장의 증가에 대비해 가공장 규모도 현재의 5천평에서 1만평으로 확장하겠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올품'은 2002년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업계 3위로 성장했다.

이 사장은 "맛과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연내 업계 2위를 차지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닭고기 포장 내년부터 의무화
업체 브랜드 알리기 총력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닭고기 포장 의무화'를 앞두고 '이름표 달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하루 8만마리 이상 닭고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닭고기 포장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전체 닭고기 생산업체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의무화가 시행되면 제품이 포장된 채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1위인 하림은 "포장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브랜드가 구매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에 맞춰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생산량 기준으로 업계 5위인 올품이 하림씨앤에프에서 이름을 바꾼 것도 1위인 '하림'과 브랜드 이름이 비슷해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두 회사는 대주주가 같은 관계사지만 사업은 완전히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치킨프랜차이즈, 급식업체 등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대형 마트 등 소매시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생산량과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설비 늘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포장생산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생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업계 3위(생산량 기준)인 체리부로는 충남 진천에 최첨단 자동시스템을 갖춘 제2공장을 설립했으며 올품도 내년 6월까지 하루에 60만마리를 포장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태제과(주)
홈런볼 26년만에 리뉴얼
컵형태 용기로 추가

'맛동산', '브라보콘' 등과 함께 해태제과의 대표적인 장수 상품인 '홈런볼'이 26년만에 새옷을 입는다. 1981년 처음 출시된 홈런볼은 당시 야구 열풍과 함께 큰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12억개 가량(약 6천억원)이 팔린 히트상품이다.

해태제과가 손을 안대도 잘 나가는 히트상품을 새롭게 내놓은 것은 경쟁사의 홈런볼 '미투(metoo)' 제품 때문이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홈런볼과 유사한 '마이볼'이라는 제품을 출시한 뒤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저가 정책을 펴면서 홈런볼의 아성을 위협해왔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경쟁사가 홈런볼과 비슷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윤영달 대표가 취임한 뒤 여러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에 따라 제품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에서 기존 제품을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출시된 홈런볼은 초코맛 이외에 치즈맛, 생크림맛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포장 용기

업계동정

도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 외에 편의점용으로 컵형태로 된 용기를 추가시켰다.

듀폰(유)
플리머 개질재 출시 Biomax® Strong
 생분해성 폴리락틱산 포장제품

듀폰(유)은 바이오기술 기반의 생분해성 포장재의 성능개선 첨가제인 'DuPont™ Biomax® Strong' 제품을 출시한다고 지난 달 4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은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폴리락틱산 포장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질재로 기존 제품보다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석유화학제품을 대신할 환경친화적 대체품으로써 인정받고 있는 폴리락틱산은 농산물을 발효해 추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폴리락틱산(poly-lactic acid, PLA)은 산업용 포장재 부문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폴리머로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PLA로 만들어진 포장재 및 산업제품은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 쉽게 깨지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듀폰은 폴리머의 개질(polymer modification) 기술을 활용해, PLA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강도를 개선한 'Biomax® Strong'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PLA의 충격 강도, 유연성 및 용해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듀폰이 현재 출시한 제품인 'Biomax® Strong 100'은 식품 규정에 대한 규제가 없는 포장재용

으며, 6개월 이내에 출시 예정인 'Biomax® Strong 120'은 식품 접촉규정 조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듀폰은 지난 1977년 한국에 진출, 듀폰에서 100% 투자한 한국법인인 (유)듀폰코리아(대표 원철우)는 종업원 4백여명으로 서울에 마케팅 사무소와 울산과 이천에 생산시설이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천8백억원을 기록했다.

생활용품업계

옥시가 피존 이겨

표백제 O₂액션'과 매직O₂'는 유사

유사한 상표를 둘러싼 표백제 업계의 법정 다툼에서 (주)옥시레킷벤키저(전 (주)옥시)가 (주)피존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옥시레킷벤키저사가 "피고가 원고와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을 했다"며 피존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3년 10월 O₂액션'이라는 상표로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장악했으나 피존이 작년 3월 매직O₂'라는 상표의 산소계 표백제를 내놓은 뒤 매출이 급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직'은 마법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갖는 흔한 수식어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상표 중 소비자 주의를 끄는 부분은 O₂'인데 이는 원고 상표 액션O₂'에서 주의를 끄는 O₂'와 호칭과 판념, 외관 면에서 동일하므로 원고상표와 피고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기에 있어서도 피고용기는 그 색상이 원고용기의 독특한 분홍색과 거의 같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색감이 매우 유사한 등 일반 수요자들이 그 포장 용기의 표시에 대해 그다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상품표지는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 상품은 얼룩제거용 스프레이 제품으로 고객층이 중복되는 등 경합관계에 있고 원고의 상표와 용기가 널리 알려진 이후에 비슷한 상표의 피고 표백제가 출시됐기 때문에 피고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주)
불황엔 과자 선물세트 인기
 과자종합선물세트 출시

추석을 앞두고 롯데제과(주)(대표이사 김상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종합선물세트 2종(각 1만원)을 선보였다. 과자 선물세트는 푸짐하고 저렴해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명절상품으로 인기가 좋은데,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 없이 좋은 선물로 각광을 받는다. 이에 롯데제과는 참신성 구성력 활용성을 높인 선물세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자선물세트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내용물, 포장형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추석, 롯데제과가 개발한 선물세트는 내용물이 인기제품 모음집이라고 할만큼 알찬데, 특히



▲ 롯데제과(주)의 과자종합선물 세트

79년 출시되어 과자종합선물세트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은 빠다코코넛은 이번에도 대표제품으로 들어가 100% 출석이라는 이색기록과 함께 친근감을 더해 준다.

포장형태는 ‘배낭형태’와 ‘상자형태’ 두 가지다. 이들 포장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배낭형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천재질로 만들고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를 부착했다. 또 상자형은 옷, 양말, 사진, 영수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용으로 만들었다. 이들 포장에는 최근 케이블방송으로 방영되며 인기를 누리는 ‘개구리중사케로로’ 캐릭터가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재미성과 친숙성을 높여준다.

두 제품 모두 부드러운 천재질 소재로 만들어져 친근감을 더해 주고, 또 포장 표면에 붙어 있는 상표스티커는 깔끔하게 떼어 내고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편의성을 살린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제과는 매년 과자선물세트로 약 6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또 추석 기간엔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올해는 긴연휴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신 제품 ❁

(주)LG생활건강

‘생활용품세트’ 출시

(주)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선물세트’를 준비해 소비자들의 선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실속형 ‘해피홈세트’ (7만6백원)는 페리오 칫솔 2개, 죽염은강고 치약 1개, 럭키스타젤 1개, 페리오치약 2개, 세이비누 2개, 죽염비누 1개, 엘라스틴 샴푸·린스 각 1개, 세이바디 1개, 세이프 1개, 홈스타 1개, 야채과일헹굼제 1개 등 세면용품부터 주방용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퓨전헬스 세트’ (6만4천원)는 리엔한방 헤어로스컨트롤 샴푸·린스·트리트먼트 각 1개, 올리타리아 올리브유·포도씨유 각 1개를 포함해 생활용품과 식품이 함께 들어 있는 독특한 선물세트다. LG생활건강의 인기상품을 모은 베스트컬렉션 5호(5만1천6백원),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구성된 세이 아로마 바디케어 세트(3만7천6백원)도 실속형 선물로 제격이다. 화장품은 고기능성 제품, 한방화장품 등 고품격 명품세트를 준비했다. ‘후 황후세트’ (32만원대)는 스킨(150ml), 로션(110ml), 크림(40ml), 에센스(45ml) 등과 견본 5종이 들어있으며 견본에는 국내 최고가 명품크림인 후 환유고(6ml)도 포함돼 있다.



롯데칠성음료(주)

추석음료 선물세트 출시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이광운)는 최근의 경기 침체를 고려해 추석음료 선물세트를 중저가 위주로 제작했다. 그러나 포장재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준비해 싸구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선물세트의 배치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고급 정통 주스의 대명사인 델몬트 오렌지 제품에 포도, 매실, 석류, 알로에, 열대과일, 파인애플, 식초, 각테일 및 황도, 백도 등 각종 과일류를 적절하게 섞어 풍성한 한가위의 이미지를 살렸다.

가격은 1.5l 병주스 선물세트, 델몬트 종합 선물세트 등이 종류별로 9천원~1만6천원 수준이다.

점심식사 한 끼 정도의 가격에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 추석 선물로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롯데칠성음료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해 추석에 음료선물세트의 매출이 30억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풀무원

유기농콩김치생나또 출시

(주)풀무원(대표이사 이규석)이 매콤한 김치와 담백하고 고소한 콩이 어우러져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풀무원 유기농콩 김치 생나또’를 출시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풀무원 유기농콩 김치 생나또’는 엄선된 100% 유기농콩을 저온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빙온숙성법을 통해 냄새를 최소화했으며, 아삭하고 매콤한 김치를 소스로 사용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평소 나또를 꺼리던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는 제품”이라며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냉장유통을 하는 이 제품은 포장을 뜯어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소스와 함께 김, 깻잎과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에서 재배해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유기농콩을 사용, 모든 원료에 대해 전량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풀무원 기준에 적합한 원료만을 선별하여 발효시켰다”면서 “콩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또 키나제’라는 성분이 혈전 용해와 장 운동을 도와 심혈관계 질환 및 다이어트,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종근당

자황 출시

민족의 명철 추석, 짝 막힌 귀향길과 막막하기만한 음식준비, 산더미처럼 쌓인 설것이에 피로만 남기 쉽다. (주)종근당(대표이사 이장한)은 스트레스와 체력소모가 많고 사고력이 저하되기 쉬운 성인남녀를 위한 보양강장제 '자황'을 추천했다. 종근당 '자황'은 동, 식물성 생약재와 7종의 비타민이 복합 처방된 강장제다. 중년 남성의 정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여성 기력 회복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자황'은 국내 최초로 광차단 효과가 뛰어난 특수 포장을 도입했다. 우수한 디자인으로 선물의 품격을 높힌 것은 물론, 안전성까지 배려한 것이다. 또 갈증해소 효과도 '자황'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복용감 역시 생약재의 좋은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렸다. '자황'은 생로알제리와 우황 등 생약과 비타민B군 등을 담고 있다. 생로알제리는 우리 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우황은 심신을 보해주며 음양곽은 기력을 보강한다. 또 항암작용에 뛰어난 백삼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연골의 주성분인 콘드로이친도 포함돼 동서양방이 조화를 이룬다.



동원F&B(주)

참치 추출 '오메가3 튜나 출시

동원F&B(주)(대표이사 김해관)는 CJ홈쇼핑을 통해 '오메가3 튜나'를 출시했다.. 인터넷쇼핑몰 'CJ몰'을 통해서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참치 고등어 콩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다. 오메가3 지방산에는 EPA와 DHA라는 유용한 성분이 포함된다. EPA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DHA는 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으로 두뇌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동원F&B가 내놓는 '오메가3 튜나'에는 DHA와 EPA 그 가운데서도 특히 DHA가 풍성히 들어 있다. 따라서 두뇌 영양 공급에 도움을 받으려는 수험생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종에 따라 EPA와 DHA 함량은 큰 차이가 있다. 먹이시슬 위쪽에 있는 참치나 고등어 같은 큰 물고기에 EPA, DHA가 많이 축적된다. '오메가3 튜나'는 참치에서 유래한 오메가3이기 때문에 다른 등푸른 생선에서 뽑아 낸 오메가3보다 DHA의 함량이 높다. 1회 분량(1회 2캡셀)당 220mg에 해당하는 DHA가 함유돼 있다.

'오메가3 튜나'는 국내에서 갓 추출한 오메가3를 담았다. 남태평양산 참치에서 잡아 영하 60℃에 냉동 보관된 참치에서 추출해 신선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오메가3 튜나'는 동원F&B의 오랜 연구, 개발의 성과로 얻은 비린내 제거 기술을 적용했다.

'오메가3 튜나' 1병(120캡셀) 가격은 3만5000원이다.



(주)천년약속

천년약속 일품 출시

(주)천년약속(대표 김성열)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한 '천년약속 일품'이 출시됐다.

친환경 무농약 찹쌀 100%를 상황버섯 균사체와 함께 저온숙성 발효 공법으로 빚어낸 '천년약속 일품'은 상황버섯의 향을 최대한 살려 잡냄새가 거의 없으며 입맛을 끌어당기는 듯한 감칠맛이 느껴지는 프리미엄급 약주다. 약주로서는 고도주라 할 수 있는 알코올 16%로 강한 느낌의 약주를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겐 안성맞춤이다.

내용물뿐만 아니라 술병에도 정성을 많이 들여 고려청자의 매병과 주병을 합쳐 놓은 듯한 외형으로 현대적인 세련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다.

현재 천년약속은 친환경 무농약 찹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농촌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이 영농 지도하는 전남 나주의 남녘들영농조합과 3만kg의 친환경 무농약찹쌀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매일유업(주)

다크 초콜릿 라떼 출시

매일유업(주)(대표이사 김정완)이 신선한 저지방 우유에 고급 리얼 초콜릿을 조화시켜 깊고 진한 맛이 특징인 정통 초콜릿 드링크 '다크 초콜릿 라떼' 를 오는 출시했다.

코코아 분말 대신 카카오가 3분의 1 이상 함유된 고급 리얼 초콜릿을 약한 불에서 우유에 천천히 녹여 만드는 홈메이드 방식을 통해 생산된 '다크 초콜릿 라떼' 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 드잔사의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 첫 맛은 달콤하고 끝 맛은 씹싸름한 특유의 맛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매일유업 노주영 팀장은 “다크 초콜릿 라떼’ 는 단순히 코코아 분말로 초콜릿 맛을 낸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된 정통 초콜릿 드링크를 컨셉트로 하고 있으며 고급화되어가는 음료 시장에서 새로운 품목으로 주목받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선광자동밸브

전자변 On-Off SSCV-1형

선광자동밸브(대표 광병규)의 SSCV-1형은 Pilot Type으로서 기존모델보다 대용량의 Solenoid Valve이다.

각종 PLANT설비의 ON-OFF제어 라인에 사용되며 특히, Valve Trim (Seat, Disc, Stem)이 STS재질로 제작되어 내구력이 우수하다. 제작규격은 40A~200A이며, 대형건물, 식품, 제약, 반도체, 화학플랜트등에 사용이 되며, Normal OPEN 및 Normal CLOSE 모두 생산 된다.



오비맥주(주)

OB블루 1.8리터 큐팩 출시

맥주 시장의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비맥주(주)(대표이사 김준영)가 소비자 이익을 내세워 오는 국내 최대 용량 맥주 'OB블루 1.8리터 큐팩'을 전격 출시했다.

OB블루 1.8리터 큐팩은 기존 국내 최대 용량 맥주인 1.6리터 OB블루 큐팩에 200ml를 늘린 초대형 제품. 하지만 가격은 기존 1.6리터 큐팩은 물론 경쟁사 제품인 '하이트' 1.6리터 제품과도 동일하다. 오비맥주는 OB블루 1.8리터 큐팩이 현재 맥주 시장의 침체 속에서 가정용 시장의 소비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1.8리터 큐팩을 중심으로 페트 맥주 시장에서의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 침체된 국내 맥주 시장의 소비 열기를 되찾기 위해 맥주 200ml를 보너스로 제공하는 야심 찬 패키지를 개발했다"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이성적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1.8리터 제품의 차별성에 주목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1.8리터 큐팩을 2003년 큐팩 출시 후 3주년 기념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정 판매로 기획했으나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2007년까지 장기 연장 판매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주)

광동큐디액 출시

광동제약(주)(대표이사 최수부)이 최근 항산화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엔자임큐텐'을 주성분으로 하여 각종 비타민류 및 로알젤리 등이 함유된 고기능성 드링크 '광동큐디액'을 출시했다.

'코엔자임큐텐'은 우리 몸속의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필수 성분으로, 체내 생합성 능력이 20세 전후로 감소되기 시작해 40세 전후로 급감한다. '코엔자임큐텐'이 부족할 경우 피로가 쉽게 찾아오고 노화가 빨리오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생활습관병

업계동정

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광동큐디액’은 이러한 30~40대 이후 부족한 ‘코엔자임큐텐’을 보충 할 수 있는 드링크로서 ‘코엔자임큐텐’과 ‘비타민’ 등의 항산화제 복합처방으로 체력 보충을 위한 ‘비타민B’군에 ‘로얄젤리’를 첨가했다.

또한, 수용성 액제로 복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로얄젤리’ 및 ‘코엔자임큐텐’ 외에도 하루에 한 병만으로 체내에 필요 한 ‘비타민 B2, B3, B6와 비타민 E’의 일일권장량 섭취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코엔자임큐텐’ 함유 드링크의 느끼한 맛을 제거해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게 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큐디액”이 30대 이후의 피로회복을 위한 고기능성 드링크로서, 남녀 누구나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기능성 음료시장 확대와 더불어 매출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주)한국야쿠르트

장라면 고추장 맛 출시

(주)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김순무)는 고추장을 스프 재료로 사용,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맛이 살아있는 ‘장라면 고추장 맛’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고추장 특유의 향미와 함께 사골엑기스와 표고버섯, 김치 콩나물엑기스, 된장양념 분말이 들어있어 진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고추장은 된장, 간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이다. 전분 분해효소인 아밀라제 등의 소화 효소와 젖산균이 들어 있어 우리 몸에서 소화와 정장작용을 도우며,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고추장 스프는 면을 끓인 후 첨가하여야만 고추장 특유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9월 중순부터 주요 할인점에서 4개들이 번들 포장 제품 구입시 판촉물을 증정하는 소비자 판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해태음료(주)

궁비 출시

해태음료(주)(대표이사 오주섭)는 조선 시대 어의들이 궁중 비방을 토대로 임금에게 진상한 정통 한방 음료 '궁비'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 보이는 '궁비'는 '궁중 비방'이라는 뜻으로 조선 영조 시대에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던 내의원에서 임금과 중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 진상한 궁중 비방을 충실히 계승해 만든 정통 한방 음료이다. 궁비는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BK21 공동 사업단에서 국산 6년근 발효 홍삼과 지황, 벌꿀, 지골피, 맥문동, 천문동, 복령 등의 성분을 함유해 재현했다.

'궁비' 브랜드를 통해 본격적인 정통 한방 음료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해태음료는 원형과 사각이 조화된 새로운 형태의 별도 유리병과 함께 제품 디자인과 선물용 박스 등에 많은 신경을 쓴 한편 '궁중 비방'의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해태음료 관계자는 "궁비의 팔각 선물용 상자는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 탄생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선물을 받는 분의 품격을 높이고 드리는 분의 마음과 정성을 궁중의 손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궁비'의 가격은 120ml 유리병이 4800원.



해태음료(주)

외유내강 복분자 출시

해태음료(주)(대표이사 오주섭)가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복분자 음료 '외유내강 복분자'를 새롭게 선보였다.

'외유내강 복분자'는 고급 복분자로 잘 알려진 전북 고창의 선운산 복분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편, 시중의 복분자 관련 제품에 비해 복분자 과즙(7%)이 많이 함유돼 고급 복분자 본연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분자는 탄수화물과 포도당, 비타민 B, C, 섬유질 등이 풍부해 신장의 기능을 보하고, 남자의 허한 신기와 기운을 돋우며, 여성의 임신을 돕고 피부와 눈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다.

업계동정

해태음료는 지난 달 '외유내강 복분자'를 시장에 테스트 마케팅해본 결과, 슈퍼마켓 점주 등 거래선과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제품 디자인과 용기를 고급스러운 형태로 리뉴얼해 정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해태음료는 '외유내강 복분자'를 30대 이상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나가는 한편, 남녀 모두 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유내강 복분자'는 180ml병 제품이 900원이다.



롯데칠성음료(주)

멋진남자 복분자 출시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이광훈)가 새로운 건강소재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복분자로 만든 '멋진남자 복분자'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멋진남자 복분자'는 고창 선운산농협의 품질 기준에 의해 엄선된 것으로 당도가 높은 고창산 복분자과즙 6%와 사과과즙 4%를 넣어 복분자 특유의 맛을 최대한 살린 제품이다. 복분자를 생과보다 먹기 편한 음료로 만들어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년 남성 층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복분자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인 나무딸기의 일종으로 그 효능으로 인해 민간에서는 열매를 생식하거나 한방에서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해왔으며 제품으로는 술이나 와인 제품이 인기를 끌어왔다. 복분자가 새로운 건강소재로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음료업체를 비롯해 유업계 제약업계 등에서 복분자를 활용한 7~8종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멋진남자 복분자'를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와 '사랑초' 제품에 이은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료 시리즈로 소비자에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시음행사 및 딜러테터를 제작하여 거래처에 배포하고 주 타깃 층인 직장인들의 소비가 많은 오피스빌딩 내 자판기 및 주변 거래선과 병원 등 선물용 제품 취급 거래선에 집중 분포시켜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